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자원봉사의 힘

글 김미중(독자, 경기 파주시 교하읍)

2007년이 저물어가던 12월 7일 전국이 들썩거렸다. 바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
들었던 사상 최악의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10Km 지점 해상에서 삼성조선 소속 해상 크레인이 유
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호와 충돌한 이 사건은 온 국민을 안타까움과 분노로 경악
하게 했다.

이 사고로 원유 12만547k(6만2천735드럼)가 바다로 유출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양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내 머리로는 상상이 가지 않았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다시 예전의 생태계로 복귀되는지, 그 동안 피해 주민의
생계는 어찌하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

그들의 쓰라린 상처는 누가 치유해 주지? 뉴스를 보는 내내 마음이 답답하고, 바다
를 생업으로 살던 주민들의 깊은 시름을 TV로 볼 때마다 그냥 편히 앉아 있는 내가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다.

드디어 참회(?)의 기회를 회사에서 마련해 주었다.

사고가 발생한지 꼭 50일이 되는 1월 26일, 회사 임직원 350여 명이 휴무인 토요일
일을 반납하고 태안지역 바다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활동에 나선 것이다.

태안에 들어서자 우리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여기 저기 어지럽게 펼쳐지고 있는
현수막이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글귀에서부터 삼성중공업에
사고 책임과 대책을 따지는 문구,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아우성이 기름기 뺀 차
가운 겨울바람 속에 뒤엉켜 있었다.

이미 사고 발생 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동안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활동을 펼쳤기에 이제는 찾는 사람이 드물겠지 생각하며 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학
교가 쉬는 토요일이라 그런지 자원봉사자들을 실어 온 관광버스의 대열은 길었고,
이미 도착하여 기름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부지런한 자원봉사자들로 해안가는 하얀
인간띠를 형성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온 어린 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이 자발적인 움직임은 내 가슴에 큰 감동을 주었다.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기름띠는 대부분 제거되어서 얼핏 보기에는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지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해안가는 멀쩡해 보였다. 그러나 바위와 자갈을 들추면 어김없이 나오는 새까만 타르덩어리로 범벅이 된 모래사장에 저절로 탄식이 나온다. 문득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타르덩어리처럼 새까맣게 속이 뒹을 피해 주민들의 모습이 연상되었다.

원래부터 제 색깔이었던 것처럼 해안가 절벽 바위는 바싹 마른 검은 기름을 꺼내고 숨을 못 쉬고 있었다. 이런 기름기는 아무리 힘들여 문질러도 떨어질 줄 몰랐다.

해안가를 하얗게 메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은 참 아름다웠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온 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춥다거나 힘들다는 불평 하나 없이 끙고 끙고 앉아 진지하게 기름을 닦아내는 옆자리 초등학생이 너무나 예쁘고 기특했다. 나도 덩달아 열심히 바위와 자갈을 들추고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닦아내려고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

시간이 더 있으면 좋으련만……. 어김없이 밀려오는 서해안의 밀물 때문에 아직 제거하지 못한 타르덩어리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반나절 봉사활동을 위해 또 반나절을 오가는 차안에서 보내야 했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해준 소중한 하루였다.

이웃의 어려움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않고, 물질로 또는 자원봉사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재난을 극복하는 우리 국민이 자랑스러웠고, 그 중에 작은 힘이지만 나도 동참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해안지역에서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출하, 유통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데다 원유에 오염된 수산물은 냄새나 외관으로 쉽게 알 수 있어 오염된 수산물이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

그 동안 막연한 불안감으로 서해안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기피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오늘 태안에서의 기름제거 봉사활동은 끝났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계속 실천해야겠다. 내일 저녁에는 서해안에서 나온 수산물로 맛깔나는 해물탕을 끓여야지……. †